# 허정무號, 이란 경기 '보고 또 보고'

## "이란 세트피스 위협적" 영상 활용 이미지 트레이닝 돌입

11일 이란과의 남아프리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을 앞두고 있는 축구대표팀이 '이란 경기 모음집'을 필승 전략으로 내세웠다.

지난달 31일 이란전을 대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훈련중인 태극전사들의 숙소 방마다 DVD가 한 장씩이 전달됐다. 일명 '이란 경기 모음집'이었다.

DVD에는 사우디 아라비아(1-1 무승부), 북한(2-1 승), UAE(1-1 무승부)와 남아공 월드컵 최종예선 세 경기를 비롯한 지난해 12월 오만 4개국 대회 에콰도르전(0-1 패)과 중국전(2-0 승), 그리고 지난달 열린 2011 아시안컵 예선 싱가포르전(6-0 승) 등 최근 이란이 치른 여섯 경기의 주요 장면이 담겨 있다. 득점 장면과 세트피스 상황 등에서 이란 선수들의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최종예선 세 경기는 방송 중계 화면을, 나머지 세 경기는 김세윤 비디오분석관이 직접 찍은 영상을 활용해 1시간짜리 분량으로 편집한 자료다.

이란 경기 DVD는 틈날 때마다 상대를 연구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라는 허정무 대표팀 감독의 메시지다. 허 감독은 두바이로 떠나오기 전 2주간 제주도 서귀포 전지훈련에서도 선수들에게 훈련이 없을 때에는 경기 비디오를 보면서 자신의 플레이를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강조했다.

공격수 이근호(대구)는 "감독님이 '한국에서는 그래도 잘한다는 선수들이 모였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비디오를 통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며 문제점을 고쳐 나가라'고 말씀하셨다"며 허 감독의 주문을 전했다.

오는 11일 이란과 결전까지 대표팀 선수들 방에서는 쉴 새 없이 이란과 보이지 않는 경기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해외파 3인방 나란히 풀타임

## 지성·영표·주영 '컨디션 최상'

## 부상 회복 김두현도 교체 투입

허정무호 합류를 앞둔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영표(32·도르트문트), 박주영(24·AS모나코)과 후반에 교체 투입된 프리미어리거 김두현(27·웨스트브롬)이 1일(한국시간) 총출동해 '코리안데이'를 만들었다.

박지성과 이영표, 박주영은 모두 풀타임을 소화해 이란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4차전 (11일)에 나설 축구대표팀 합류를 앞두고 최상의 컨디션을 과시했다.

◇**박지성, 맨유의 활력소**=2경기 연속 풀타임=박지성은 1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에버턴과 24라운드 홈경기에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장, 풀타임으로 활약하며 1-0 승리에 앞장섰다.

맨유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페널티킥 결승골을 앞세워 지난해 11월16일 스토크시티전(5-0승)을 시작으로 12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호날두와 좌우 측면 날개로 나선 박지성은 지난달 28일 웨스트브롬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풀타임으로 부상 우려를 털어냈다.

◇**이영표 13경기 연속 풀타임**=이영표는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바이엘 레버쿠젠과 18라운드 홈 경기에 왼쪽 수비수로 전·후반 90분을 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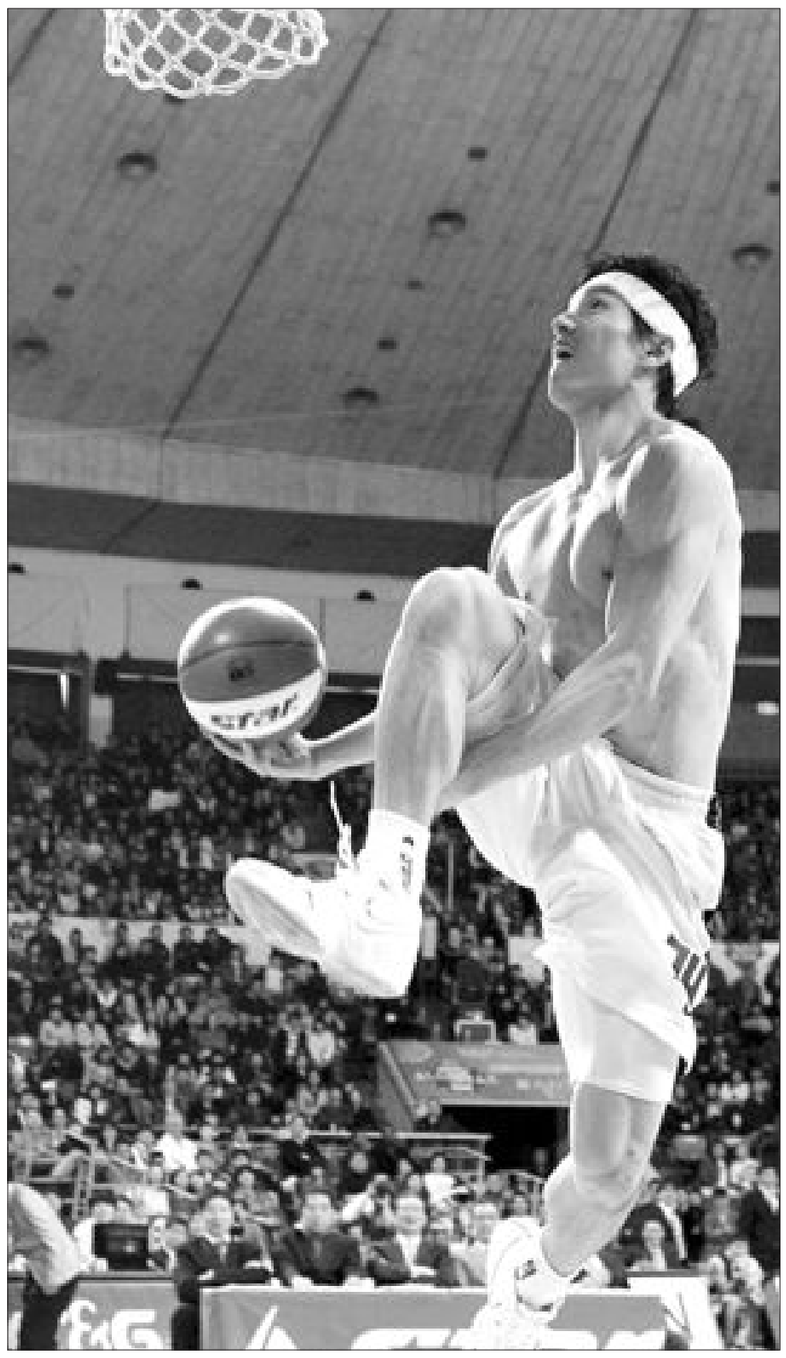
지난해 9월28일 VfB 슈트트가르트전 이후 정규리그 13경기 연속 풀타임. 특히 1월29일 베르더 브레멘과 독일컵 16강에서 90분을 뛰고 사흘 만에 또 풀타임을 소화하는 강철 체력을 뽐냈다.

〈박지성〉

〈박주영〉

◇**박주영 풀타임…석달째 득점포 침묵**=박주영은 이날 그레노블과 프랑스 리그1(1부리그) 22라운드 홈경기에서 전·후반 90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다.

42일 만의 부상 복귀전이었던 지난 19일 강과 21라운드, 26일 니스와 프랑스컵 32강전에 이은 두 경기 연속 풀타임. /연합뉴스


'덩크왕' 김효범 1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별들의 잔치' 2009 동부 프로미 올스타전 덩크슛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모비스 김효범이 덩크 묘기를 선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현대 강서브, LIG 폭격…3-1 역전승

현대캐피탈이 LIG손해보험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1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현대캐피탈은 1일 8천700여명의 관중이 꽉 들어찬 가운데 올림픽 제2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08-2009 프로배구 서울 중립경기에서 LIG손보에 세트스코어 3-1(21-25 25-22 26-24 25-17)로 손에 땀을 쥐는 승리를 거뒀다.

3세트에서 사실상 승부가 갈렸다. 세트스코어 1-1에서 LIG손보는 23-20까지 앞서갔다. 이 순간 대부분은 LIG손보의 승리를 점쳤다.

그러나 그 순간 '해결사' 박철우(23득점)가 빛났다. 박철우는 21-23에서 강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들어 앤더슨의 공격 성공을 가져왔고 카이의 후위공격 실패로 맞은 23-23 동점 상황에서는 서브득점으로 24-23을 만들며 승리의 물꼬를 완전히 현대쪽으로 가져왔다. 이후 LIG손보는 카이의 공격이 코트를 벗어나며 석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다. 이후 현대캐피탈은 완전히 상승세를 탔고 반면 LIG손보는 한 눈에도 기력이 빠진 듯 했다. /연합뉴스

## '흑진주' 서리나 윌리엄스

# 호주오픈 여 단식 우승

'홀수 해는 내 차지'

'흑진주' 서리나 윌리엄스(2위·미국)가 2009년 첫 그랜드슬램 대회인 호주오픈테니스대회 여자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서리나는 31일 호주 멜버른파크에서 열린 대회 13일째 여자단식 결승에서 디나라 사피나(3위·서리아)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끝에 2-0(6-0 6-3)으로 완파했다.

우승 상금 200만 호주달러(한화 약 17억8천만원)를 받은 서리나는 2003년과 2005년, 2007년에 이어 최근 홀수 해에서 이 대회 우승을 놓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 美 슈퍼볼 TV광고 총액

# 2천8백억…사상 최고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미국 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 TV광고 총수입이 사상 최고액을 갱신했다.

제43회 슈퍼볼 중계방송을 맡은 미국 NBC방송은 슈퍼볼 TV 중계방송 광고 69개 중 남아있던 2개도 모두 팔면서 슈퍼볼 광고 총수입이 2억600만 달러(약 2천842억원)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NBC 유니버설 회장인 제프 주커는 "불황 속에서도 이렇게 광고가 팔린 것은 NFL 브랜드와 슈퍼볼의 위력을 보여준 것"이라며 "슈퍼볼이 미국 최고의 축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슈퍼볼 TV 중계방송 광고는 1995년의 경우 30초 스팟 광고가 100만 달러를 돌파한 후 2000년에는 20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올해는 240만~300만달러에 팔렸다.

1억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시청하는 미국 최대의 프로스포츠 행사인 슈퍼볼은 광고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벤트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현대자동차가 올해 슈퍼볼 개막 쇼 주광고주로 참여한다.

# 맨유 순항…10년만에 '트레블' 재도전

〈정규리그·챔피언스·FA컵 우승〉

## 에버턴 꺾고 정규리그 1위 지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이끄는 프리미어리그 '강호' 맨유가 1999년 이후 10년만의 '트레블'(정규리그·챔피언스리그·FA컵 등 3관왕) 달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맨유는 1일(한국시간) 새벽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치러진 정규리그 24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44분 터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페널티킥 결승골을 앞세워 에버턴을 1-0으로 물리쳤다.

맨유의 가파른 상승세는 정규리그 3연패 기대를 부풀릴 만하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더블 우승'을 달성하고도 FA컵 8강에서 포츠머스에 0-1로 덜미를 잡히는 바람에 트레블 재현에 실패했던 맨유는 이번 시즌 정규리그 개막 후 4경기에서 1승2무 1패로 출발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에버턴전 승리로 12경기 연속 무실점과 함께 안방에서 10연승을 질주했다. 특히 지난해 11월9일 아스널전 1-2 패배 후 12경기 연속 무패(10승2무) 행진 중이다. /연합뉴스

## 2일(월)

▲08/09 NFL 43회 슈퍼볼〈피츠버그 : 애리조나〉(08 : 00·SBS스포츠)

▲NH농협 08/09 V리그〈LIG손보 : 우리캐피탈〉(14 : 40·KBS n 스포츠) 〈삼성화재 : 신협상무〉(16 : 40·KBS n 스포츠) 〈대한항공 : 한국전력〉(18 : 40·KBS n 스포츠)

▲08/09 여자프로농구〈신한은행 : 우리은행〉(18 : 50·SBS스포츠)